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2년여만에 징계 도마위

강수훈 시의원 "재판 진행 알면서 직무 배제안해" 올해 1월 실형 선고 9월 뒤늦게 파면 '늑장 대응'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A씨가 관련 업체 종사자를 성추행해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TP는 지난 9월에서야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사진)은 13일 광주테크노



2022년 11월 성추행을 당하고 한 달 후 우편으로 TP에 피해를 제보했다.

TP는 제보를 접수하고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었으나 기존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에는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 부서로 발령을 내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2개월 뒤인 지난 9월 말에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가해자로 인해 내부 회의도 했는데 왜 묵인하고 2년 가까이 급여도 정상 지급했느냐"며 "파면 징계 후에도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행정 대처는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의원(민주당·서구4)도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징계하는 것보다도 비교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의명 제보를 받고 사태를 파악하려 했으나 담당 간부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가 안됐다"며 "성범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직무 배제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전남도는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도 적극 독려했다.

전남도는 이날 현재까지 백일해 예방접종 5만7천319건을 실시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강기자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돼 15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복지·청년 정책 등을 홍보할 광주시 부스. <광주시제공>

통합돌봄·청년 정책·'대자보 도시' 전파한다

'정부박람회' DJ센터서 개막...광주시, 특별전시관 운영

'대한민국 정부박람회'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박람회는 15일까지 사흘간 지속된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청년 정책과 '대자보 도시'를 홍보한다.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1개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박람회에는 9개 공공 부문 혁신 사례가 전시된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뉜 놀

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해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 사례도 전시 중이다.

개최 지자체인 광주시는 '광주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관을 마련, 복지·청년·첨단산업·대자보 도시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의 모습과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대표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는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광

주다음 통합돌봄', 365일 우리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간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청년의 어려움을 보듬고 첨단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로 중심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대자보 도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광권역 대자보 특별교통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성강기자

'백일해' 급증...임신부·동거 가족 성인도 예방접종 권고

올해에만 광주 612명·전남 1천401명 발생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도가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동거 가족 등 성인들도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이달 2일 기준 백일해 전체 발생자수는 총 3만332명으로 소아 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천591명)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총 612명이 발생했다. 전남지역 백일해 발생자 수는 1천401명에 달한다.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기초 3회·추가 3회)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역저하자, 중증증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주시·전남도는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도 적극 독려했다.

전남도는 이날 현재까지 백일해 예방접종 5만7천319건을 실시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박성강기자

전남도-中쓰촨성, 협력 강화한다

현지서 우호교류 20주년 행사...김밥·특산품 등 홍보

전남도는 13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셴주리 시티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쓰촨성과의 우호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사는 명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쓰촨성 고위급 관계자, 현지 유관기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지역간

우호교류 성과 공유 및 미래 발전 모색을 위한 고위급 회담, 홍보영상 상영, 전통예술포럼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밥 만들기 체험과 전복 요리, 조미돌기 등을 선보였으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한복 체험, 전남도 홍보사진·특산품

전시회가 열려 전남의 매력을 알렸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쓰촨성 시민들에게 전남의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청두시 CJCGV에서 전남도관을 개관, 2025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명칭환 부지사는 "전남도와 쓰촨성은 20년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농업, 관광, 문화, 청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광주농기센터, 농업인교육 성과공유회

광주농업기술센터는 13일 '2024년 농업인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천173명을 대상으로 27개 과정 267차례 농업인 교육을 진행,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신규 농업인부터 농·창업을 준비하는 청

년농업인, 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농업인까지 단계별로 농업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신규 농업인은 체계적 교육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고 청년농업인은 꾸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

신만의 영농 창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전문농업인은 선도농업인 모델화 교육을 통해 자기기술, 프레젠테이션(PPT)을 작성하는 역량을 키웠다. 여성농업인은 농촌 융복합산업 사례 탐구교육을 통해 농식품 가공·농촌체험 분야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박성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작하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방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화정동 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임시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중증원님의 건강과 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중증 정관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11월 30일(토) 오전 12시
2. 장 소 : 광주 서구 화정동 1252, 명동아구별 식당 (화정2동 글로타워 아파트 근처 상설가센터 뒤)
3. 회의목적사항(부의인건)
 - 제1호 의안 : 중증 소유 부동산 처분 (화순군 사평면 유마리 50-1, 전 9,947㎡)에 따른 중증원에 대한 임시사건 (행정, 배임) 진행
 - 제2호 의안 : 중증 소유 부동산 처분 (화순군 사평면 유마리 50-1, 전 9,947㎡)에 따른 중증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진행
4.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 중증원은 임시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중증원 신분증, (인감) 도장
 - 대리행사 : 위임장 (중증원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사항
 - 위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중증 회장 (010-3623-6442)에게 연락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함양박씨 추모암공파중증 회장 박성환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